



사역 소식: 2024년 1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안부를 전합니다! 저희의 최근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해 드립니다.

아쉬켈론 사역 - "그 이후"

요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전쟁 이후"라는 문제를 두고 씨름 중입니다. 그 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 이후"를 생각하며 아쉬켈론에서 전쟁 이후 구호 노력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지속 중이지만, 도시에 떨어지는 로켓은 아주 드물어졌고 아쉬켈론은 이제 어느 정도 정상 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 덕에 지난 3개월간 저희는 많은 사람들(약 800가정)을 도울 수 있었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내고 이제 모두에게 작별을 고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한 이들을 잃고 싶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자, 미혼모, 노년층과 장애인으로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으며, 슬프게도 전쟁으로 인해 물가와 세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머지 않은 날 재정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4년에 단기 전쟁 구호 캠페인을 **지속적인 구제 프로젝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은 비용과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할 테지만, 많은 이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 같은 사람을 다시 만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음식을 전달하며,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커다란 그룹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역에 대단한 잠재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음식을 나눠주고 있는 또 다른 근처 도시 **오파킴**에서는 **주간 성경 공부 모임**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아쉬켈론과 오파킴에서 연락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형제, 서로 다른 반응

모셰*와 **아드밀**은 **아비브 센터**에 밥을 먹으러 오는 형제입니다. 둘은 같은 아랍인 아버지를 뒀지만, 어머니들의 배경은 전혀 다릅니다. 모셰(39세)의 어머니는 유대인인 반면



아드밀(39세)의 어머니는 아랍인입니다.

형제들은 노숙을 하며 텔아비브 거리에서 힘겹게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갈 곳이 없어 많은 시간을 배고프게 지냈습니다.

저희 직원 실로모는 어느 날 저녁, 음식 준비를 모두 마쳤을 때, 복음을 전하러 거리로 나갔다가 아드밀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유대교를 따르고 있는

모셰*가 있었는데, 그는 저희 팀이 아드밀에게 말을 걸지 못하게 계속 막았습니다.

아드밀은 저에게 자신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머리 속에서 자꾸 자살하라는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에게 예수님과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한 봉사자 모티도 대화에 끼게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아드밀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반면 모세는 유대 정체성이 강해서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개념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떠난 후 어느 날, 아드밀은 너무나 흥분하여 저희에게 달려와 자신이 계시를 받아 눈먼 자가 보게 된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드밀은 저희가 자신에게 세상의 유일한 선한 길을 전해주었음을 깨달았으며, 예수님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두 형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재활 센터 수료자 2명

저희 재활 센터에 있던 **알렉세이**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센터를 떠나 홀로 살게 되었으며, 아내와 좋은 관계로 회복되었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계속 저희 공동체 사발 예배에 참석 중입니다. 그가 앞으로 계속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어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또 4개월 전에 저희를 찾아온 **알렉산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상태가 좋아져 일자리를 구했으며, 아파트를 구해 센터에서 나가고자 합니다. 재활을 4개월 밖에 안 했기에 저희는 걱정이 됩니다. 알렉산더가 계속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어 살아가는 건 아주 어려울 테니까요. 긍정적인 부분은, 그가 교회와 재활 센터 모임에 계속 나오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재활 센터 매니저인 **빌헬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유일한 교사이자 일꾼이라, 그를 도와줄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복음을 들은 두 자매

언젠가 저희는 **라피아*** 담당 사회복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라피아는 2022년에 저희 **여성 쉼터**에서 지내다가 나가서 혼자 살기로 했던 자매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라피아*에게 다시 쉼터가 필요한 상황인데, 꼭 저희와 연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녀를 받아들였는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감정적, 심리적) 상태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악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사랑과 돌봄으로 라피아*를 채워주며 그녀를 도왔습니다. 슬프게도 라피아*는 한 달 반 후에 저희에게 감사를 표하고는 또 다시



Volunteers brought Christmas gifts to the Shelter

쉼터에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랍 무슬림으로 굉장히 자기 표현을 하지 않아서, 장래가 많이 걱정 됩니다. 라피아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들었기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녀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12월에 저희는 또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자매 **에디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일주일째 브엘세바의 거리에서 지내고 있던 사람이었죠.

저희는 많은 정보를 받지 못한 채 에디트를 쉼터로 데려왔습니다. 며칠이 흘렀을 때, 저희는 에디트에게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고, 그녀에게 필요한 전문적

도움을 제공해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상태를 더 낫게 해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녀를 알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디트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사랑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도브 & 올라 비카스 드림

POB 1181 • Arad 8911002 • Israel • Tel/WhatsApp.: +972-544-997336

